

■ 국내 캡슐형 내시경 1호 '미로' 개발한 전남대 박종오 교수

'1회용' 로봇 검사... 감염 걱정 끝

최신 TV시사프로그램은 국내 병원의 내시경 관리가 비위생적으로 이뤄져 2차 감염의 통로가 될 수 있다고 폭로했다.

지역민들은 병원에서 이미 사용한 내시경을 휴지로 대충 닦은 뒤 다른 환자에게 다시 투입하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얼마 뒤 '코리안 특급' 박찬호(33·샌디에이고 파드리스)가 장출혈 진단을 위해 알약 크기의 캡슐형 내시경을 삼켜 위장 사진을 찍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국내 병원에서 흔히 사용 중인 '졸달린' 내시경의 안전성에 의구심을 갖게 된 사람들은 일회용 캡슐형 내시경이란 첨단 의료기기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됐다.

박찬호 선수에게 사용됐던 캡슐형 내시경은 이스라엘에서 지난 2002년 개발한 '필캠(Phil Cam)'. 장의 운동에 따라 화면까지 내려가면서 촬영한 화면을 목 밖의 외부 모니터에 무선으로 송출한다.

하지만 '필캠'보다 훨씬 성능이 뛰어난 캡슐형 내시경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돼 오는 11월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우리나라 최고 로봇 전문가로 불리는 박종오(51) 전남대 기계시스템공학부 교수. 박 교수는 지난 1999년 산업자원부의 재정 지원으로 발족한 '지능형 마이크로시스템 개발사업단'의 단장으로 지난 2003년 우리나라 캡슐형 내시경 1호인 '미로'(Micro Robot of the 약자)를 개발했다.



캡슐형 로봇 '미로'는 지름 11mm, 길이 23mm로 먹는 알약 크기이다.

(지능형 마이크로시스템 개발사업단 제공)

'미로'는 이스라엘의 '필캠'보다 개발시기는 다소 늦었지만 모든 면에서 '필캠'을 능가한다. 지름 11mm 길이 23mm로 길이가 3mm 작은 반면 화질은 10만화소로 5만화소의 '필캠'보다 훨씬



로봇에 대한 열정을 "로봇에 목숨 걸었다"고 표현한 박종오 교수가 10일, 자신의 연구소에서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내망기자 mjna@kwangju.co.kr

세계 최초 '필캠'보다 성능 뛰어나 검진료 20% 불과... 생생한 화질 광주 가전로봇산업 발전에도 앞장

선명하다. 검진료 역시 25만원으로 '필캠'의 5분의 1에 불과하다.

박 교수는 "당초 '세계 최초'를 목표로 연구에 착수했으나, 2002년 '필캠'이 개발돼 꿈이 무산되자 더욱 우수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크기·카메라 화질·비용 면에서 앞선 제품을 개발하게 됐다"고 회상했다.

또 "2005년 단장에서 물러났지만, '미로'가 곧 상용화돼 악성 종양과 같은 질병을 조기발견하는데 기여하리

라고 생각하니 정말 뿌듯하다"고 덧붙였다.

박 교수가 로봇연구에 목숨을 건 것은 광주일고와 연세대를 졸업한 뒤 지난 1981년 과학기술부 국비 장학생으로 독일 슈트트가르트(Stuttgart) 공대로 유학을 떠나면서부터. 박 교수는 세계적인 로봇 권위자인 바르네케(Warnecke)교수를 만나 로봇 연구의 초기 기반을 다졌다.

박 교수가 연구해 온 로봇은 마이크로

로(micro) 형태의 소형 로봇. 로봇기술 중에서도 가장 어렵다는 이 분야에서 박 교수는 그간 캡슐형 내시경, 안정형 디스플레이, 마이크로 PDA 등을 개발해왔다. 그의 이름은 국내보다 해외에서 더 유명해져 지난해에는 국제로봇연맹(IFR·International Federation of Robotics) 회장으로 선출되기도 했다.

지난 2005년 2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전남대로 자리를 옮긴 박 교수는 현재 광주지역의 주력산업인 가전산업에 기반을 둔 가전로봇산업을 주도하고 있다.

박 교수는 "광주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개발 성공모델을 만들고 싶고, 이를 전남대가 주도할 계획"이라며 "2008년께 가전로봇을 시중에 선보이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서민정기자 viola@kwangju.co.kr

나원침 (6905) 김창두



연예가동맹회
대주 피오레
1,300여 세니 중 55명 3334년
문의 (062)366-4220

프랑스인 부부 혐의 부인 "한국서 조사 받겠다"

유전자 감식 결과 서울 서래마을 '유기영아'의 부모로 나타난 프랑스인 C씨 부부는 10일 변호사를 통해 영아 유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한국으로 돌아갈 조사를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C씨 부부는 이날 오후 투르 검찰에 출두해 2시간 조금 넘게 조사를 받은 뒤 귀가 조치됐다. 이들의 변호사인 미국 모방은 한국 경찰의 조사 결과가 터무니없다며 "부인의 임신 사실을 어떻게 남편이 모를 수 있겠느냐. 경찰에 신고한 사람도 바로 남편이었다"며 이들 부부가 죽은 채 발견된 영아와 관련이 없다고 항변했다.

어선 방향 전환기 14척 싸늘이 절도

최근 고철 값이 상승하면서 돈이 되면 뒤집어 놓는 생계형 절도범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어선에서 하트 밭 사이 정박 중인 어선의 방향 전환기를 싸늘이 해가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어 어민들이 울상이다.

11일 여수해양경찰에 따르면 지난 6일 여수시 화양면 이목마을 앞 선착장에 정박 중인 어선 9척의 방향전환기가 감쪽같이 사라진 데 이어 8일 돌산읍 평사리 굴전마을에서도 어선 5척의 방향전환기가 없어졌다.

절도범들이 방향전환기에 눈독을 들이는 이유는 종전에 1kg에 1천100원하던 스테인리스 가격이 최근 1천500원선까지 오르면서 30~50kg하는 스테인리스로 된 방향전환기가 돈이 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통신비밀보호법 자체는 아무런 위법성 조각사유도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여 언론의 기능상 보도가 불가피하다고 보이는 등 두 기본권이 상충되는 경우 통신비밀침해 행위에도 형법상의 정당행위 조항 등 일반적인 위법성 조각사유를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연광 월간조선 편집장에게는 녹취록 전문을 보도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하며 유죄를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지만 이미 다른 매체에서 관련 내용을 보도해 위법성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해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더위잡 식혀주렴 8월 12일

고기잡의 가장자리에 들어 (음 7월 19일) 남(시)

광주	24~33℃
포항	25~34℃
여수	25~32℃
완주	24~33℃
대구	23~36℃
부산	24~33℃
울산	23~33℃
대전	24~33℃
충주	23~35℃
전주	24~34℃
대구	24~34℃
부산	24~34℃
울산	23~34℃
전주	24~34℃
부산	23~34℃
울산	24~34℃

서해남부 앞바다
남서~서풍
파고 0.5~1.0m

서해남부 먼바다
남서~서풍
파고 1.0~1.5m

남해서부 앞바다
남서~서풍
파고 0.5~1.0m

남해서부 먼바다
남서~서풍
파고 1.0~1.5m

목포 밀물 <04:15
16:29
썰물 <09:24
21:36

여수 밀물 <11:03
23:26
썰물 <04:53
16:59

기상안내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13(일)	14(월)	15(화)	16(수)	17(목)	18(금)
날씨	☀	☀	☁	☁	☁	☁
최저/최고	24/32	24/33	24/32	24/31	24/29	24/30

日帝 남양군도 강제동원 전남지역 29%로 최다

승선명부 10,996명 공개 1930년대 후반 이후 남태평양 적도 부근에 산재해 있는 섬들인 남양군도(南洋群島)로 강제동원됐다. 1945년 광복 직후 본국으로 귀환한 한국인 승선자 명부가 발굴 공개됐다.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 유영렬·국편)가 11일 공개한 이 자료는 재미 사회자인 방선주(73) 박사가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에서 찾아낸 것으로 한국인 귀환자 1만996명에 대한 승선 명부를 담고 있다.

문건에 따르면 한국인 귀환자(승선자)는 농업 관련자 및 일반인 6천880명, 군속(군 노무자) 3천751명, 군인 190명, 일본 귀환 조선인 175명으로 분류됐다. 농업 관련자와 일반인을 본적지별로 세분화하면 ▲전남(29%) ▲전북(27%) ▲경북(20%) ▲경남(12%) ▲충북(8%) ▲충남(3%) ▲경기(1%)의 순이었으며, 성비는 남성 70%대 여성 30%였다. 16세를 기준으로 성인은 71%, 유소년 29%로 나타났다. 호남과 영남지역 출신 비율이 높고 여성 비율도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음이 두드러진다.

총 3천799장으로 구성된 이 문건은 일제 패망 직후에, 미국 태평양함대 군정 부대가 1945년 말에서 1946년 초에 본국으로 귀환하고자 하는 한국인, 일본인, 중국인 명단을 국적별로 작성해 놓았다.

장혜옥 전교조위원장 교사직 상실 위기

벌금 100만원 선고 대통령 탄핵반대 시국선언 및 특정 정당 지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장혜옥 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에게 벌금 100만원이, 원판만 전 위원장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구유서 부장판사)는 장혜옥씨 등 전교조 교사 5명에 대한 과거관습성 선고공판에서 "피고인들은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고 학생들에게 준법교육을 육성할 책임이 있는 교사라는 특수한 신분을 감안하면 공익에 반하는 집단행위를 한 점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 266조 1항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공직에 취임되거나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으며 교육부의 유권해석은 재직자에게도 이 조항이 적용된다는 입장이어서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교사직을 상실할 수 있어 위원장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수능 100일 야식 '여고3' 35명 집단설사

광주서... 학교급식 중단 역학조사

광주 K여고 3학년 학생 30여명이 집단 설사 증세를 보여 보건 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다.

광주시교육청은 "광주 K여고 3학년 학생 35명이 8일부터 집단 설사 증세를 보여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 등 보건당

국과 함께 학생들의 가검물을 채취해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시 교육청과 학교 측은 10일부터 학교 급식을 중단하고 1·2학년 학생은 오전 보충수업 후 귀가하도록 하고 3



광주지역 민간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11일 광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처우개선 등을 촉구하고 있다.

/내망기자 mjna@kwangju.co.kr

"민간 어린이집 처우개선하라"

교사·원장 1천200여명 광주시청앞 시위

광주시내 민간 어린이집 연합회 소속 보육교사와 원장 1천200여명은 11일 오전 광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처우개선과 보육서비스의 형평성 개선을 촉구했다.

교사들은 이날 "광주시는 '1등 광주'를 표방하는 시정목표와 달리 지자체 중 가장 열악한 육아지원을 하고 있다"며 "특히 보육예산 대부분이 국·공립, 법인 등 정부지원 시설에만 집중돼 있어 미지

원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들은 더 많은 돈을 내고도 낮은 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시는 정부 미지원 보육시설 교사 최저급여를 77만원으로 책정하고 타 시·도에서 지급하는 처우개선비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 미지원 시설 보육교사들에게 처우개선비로 1인당 월 3만원씩, 지난 3월부터 소급 지급

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외에 ▲보육시설 자율지도 점검 시스템 구축 ▲유아반 기본보조금 시범시설 선정 기준의 형평성 제고 ▲특수교육(방과후, 시간연장) 활성화 ▲특수형평성과 시설운영 형태에 맞는 보육시설 재무회계 기준 마련 ▲보육시설 물품 구입시 재래시장 활용 활성화 등을 요구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처우개선비는 시·구비 공동 부담으로 예산에 편성하려 했으나 각 자치구의 예산이 부족해 무산됐다"며 "오는 12월 정기 추경 예산에 편성해 6개월분을 소급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곽성정기자 ks@kwangju.co.kr

'안기부 X파일' 보도 MBC기자 무죄선고 법원 "알권리 충족한 정당행위"

국가안전기획부의 도청 녹취록인 '안기부 X파일' 내용을 보도한 MBC 이상호 기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득환 부장판사)는 11일 '안기부 X파일' 내용을 보도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이상호 기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씨의 보도 행위는 공적 관심사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정당행위로 판단되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통신비밀보호법 자체는 아무런 위법성 조각사유도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여 언론의 기능상 보도가 불가피하다고 보이는 등 두 기본권이 상충되는 경우 통신비밀침해 행위에도 형법상의 정당행위 조항 등 일반적인 위법성 조각사유를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연광 월간조선 편집장에게는 녹취록 전문을 보도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하며 유죄를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지만 이미 다른 매체에서 관련 내용을 보도해 위법성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해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선고 직후 "판결문을 검토해 본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한인노인 가르칠 중고컴퓨터 보내주소"

○호주의 한 교민이 현지 한인 노인들의 정보화 교육을 위해 중고 컴퓨터가 필요하다며 5·18기념 재단에 애타게 도움을 요청.

○5·18 기념재단에 따르면 호주 시드니에서 살고 있는 구장완(71)씨가 한인 노인들에게 인터넷 사용법 등을 가르치는데 필요한 컴퓨터를 구하기 위해 자주 전화를 걸어 지원을 부탁하고 있다는 것.

○구씨는 5·18 기념재단이 아시아 인권단체에 중고 컴퓨터를 지원해온 사실을 알고 도움을 요청했는데, 재단 측은 "구씨의 경우 개인으로 지원대상이 아니었다. 현재 관공서나 업체의 지원도 끊겨 딱히 도움 방법이 없다"며 기관이나 독자의 기증(기증문의: 062-456-0518)를 당부.

/서민정기자 viola@kwangju.co.kr